

# 가요 리메이크 연구 - ‘인형의 꿈’ 중심으로 -

김수빈,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112044@naver.com](mailto:11204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A Study on the remake of K-Pop songs. - Focusing on the song The Dream of a Doll'-

Su-Bin Kim, Tae-Seon Cho\*

Graduate School of Chungwoon University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약

리메이크란 어떤 창작물을 그것과 같은 장르, 혹은 다른 형태로 다시 바꿔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창작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음악적 특징과 추구하는 스타일에 따라 재해석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곡과 리메이크 곡 사이의 다양한 편곡 차이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인형의 꿈을 중심으로 원곡과 SNB 버전을 분석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 긍정적인 효과와 시대별 상황, 배경에 따라 다양하고 트렌디한 새로운 형태, 현대의 어법으로 리메이크가 됨으로써 듣는 이에게 시대별 감성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옛 음악과 현대음악의 세대 공감에 되도록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서론

리메이크는 유행의 차원을 넘어 대중가요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것이며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지만 대체로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따른다. 원작의 이름은 빌리지만 새로운 장르의 작품을 창조해 내는 패러디와 구분되며, 또 원작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악기소리와 MIDI 기술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편곡이 가능하고 새로운 코러스 도전으로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1].

본 논문에서는 SNB의 ‘인형의 꿈’의 리메이크 분석을 통해 원곡(일기예보 ‘인형의 꿈’)과의 악기구성, 코러스, 보컬, 장르의 차이점과 원곡과의 공통점, 음악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살펴 보는데 목적이 있다.

## 2. 인형의 꿈

1996년 발매된 곡으로 원곡자는 일기예보이다. 워낙 많은 인기를 끌어서 많은 가수들이 편곡을 했는데 특히 여러 방송에서 후렴구인 “한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댄 영원히 내 모습을 볼 수 없나요”를 많이 사용해서 음악은 몰라도 후렴구만 아는 사람도 많다. 원곡자인 일기예보 버전보다 러브홀릭 버전이 더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일기예보보다 러브홀릭 버전이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러브홀릭 멤버 중에 일기

예보의 멤버이자 인형의 꿈을 작사/작곡한 강현민이 있기 때문이다. 원작자의 참가로 원곡의 애절함을 잘 살림과 동시에 더욱 증폭시켜서 다른 리메이크 작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2.1. 일기예보

1989년 ~ 1999년 활동한 대한민국의 포크/모던 록 그룹 강현민, 나들, 정구련의 3인 멤버로 처음 결성되어, 1989년 MBC 강변가요제에 동상으로 입상 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가수를 데뷔했다. 1993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으며, 1995년 2집 활동 이후 정구련이 탈퇴를 2인조가 된 뒤 1999년까지 활동했다. 2집까지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가 2인조로 활동하기 시작한 3집의 수록곡 <좋아 좋아>, <인형의 꿈>이 가요 프로그램에서 10위권까지 오르는 등 대박을 치면서 일기예보를 원래부터 2인조 그룹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4].

#### 2.1.1 곡 분석

8 E<sup>b</sup> G Csus4 Cm Fm7 B<sup>b</sup>sus4 B<sup>b</sup>7  
만 고 개 품 돌 려도 남 볼 수 있을 텐 - 네 - 세움

12 E<sup>b</sup> Gsus4 G7 Csus4 C7 Fm7 F/A B<sup>b</sup>sus4 B<sup>b</sup>7  
만 그대 모 볼 앓프 그 제 볼 수 - 만 있 다면 - 하지

[그림1] 일기예보 ‘인형의 꿈’ 8 ~ 15마디

[그림1]은 원곡의 Verse이다. 피아노가 4 비트로 연주가 되고 있고 보컬의 한마디가 끝날 때 마다 코러스가 가사에 맞춰 크레센도로 나온다.

[그림2] 일기예보 '인형의 꿈' 20 ~ 25마디

드럼이 Fill in 과 함께 기타 슬라이드로 후렴이 진행되며 후렴전체에 코러스가 돌림노래처럼 가사를 따라 부름으로써 보컬에 힘이 실려 감정전달이 잘 된다.

[그림3] 일기예보 '인형의 꿈' 37 ~ 49마디

38마디에서 피아노를 4비트를 스타카토로 연주하며 39마디에서는 코드를 풀어서 친다. Bridge 대부분을 스타카토로 연주하여 2절 후렴과는 다른 느낌을 줌으로써 고조될 감정을 미리 보여준다. 44마디를 살펴보면 감정이 고조되기 위해 기타 슬라이드로 빌드업이 되고 보컬 멜로디 위에 코러스가 화음을 쌓고 아래에 패드로 코러스를 깔아주고 있다. 이 후 기타가 노래 멜로디로 솔로를 하고 코드 진행에 맞춰 패드로 진행되는 코러스가 나온다.

[그림4] 일기예보 '인형의 꿈' 54 ~ 59마디

기본적인 보컬 멜로디 라인 위에 애드립이 추가되고 마지막까지 코러스와 함께 나와 애절함의 감정이 끝까지 고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SNB

혼성 7인조 밴드 SNB는 'Saturday Night Band'의 약자이며 매주 토요일 밤마다 모여 연습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일상의 무료함과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평소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며 음악을 즐긴다.

SNB는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남자보컬 채정재, 매력적인 보이스의 여자보컬 안정임, 열정적으로 팀을 리드하는 베이스 천상현, 음악을 총괄하는 절대강자 기타 이종수, 푸근하게 팀을 감싸 안아주는 드러머 박성재, 매혹적인 코러스를 겸한 키보드 정은경, 건반 위의 여신 세컨드 키보드 조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음악으로 힐링 되는 순간의 행복을 널리 전하고 싶은 염원을 담아 점차 다양한 음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팀이다[6].

밴드 SNB버전의 '인형의 꿈'은 기존 일기예보의 원곡과 리메이크 버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최초의 남녀 듀엣곡으로 편곡된 점이 눈길을 끈다[5].

### 2.2.1 곡 분석

[그림5] SNB '인형의 꿈' 1 ~ 8마디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이루어져 있고, 힘을 빼고 담담하게 연주하여 듣는 이들에게 보컬의 감성적인 느낌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해준다.

[그림6] SNB '인형의 꿈' 12 ~ 28마디

베이스 슬라이드로 시작되며 보컬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기 위하여 드럼을 킥과 스네어로만 연주한다. 후반에 락 발라드의 느낌을 가지고 달리는 느낌을 주는 원곡과는 다르게 밴드 SNB의 버전에서는 보컬위에 코러스가 나오지 않는다. 메인 보컬만 나오므로 담백하고 깔끔한 노래를 좋아하는 요즘 세대들의 니즈를 충족해준다.



[그림19] SNB ‘인형의 꿈’ 54 ~ 67마디

남자, 여자보컬이 유니즌으로 같이 나오고 피아노 감성발라드지만 후반부에는 락 발라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 모든 악기들이 보컬 멜로디에 맞춰 섹션을 넣어준다. 마지막까지 감정을 최대로 살리기 위해 오히려 악기들의 구성을 비웠다. 피아노가 Outro에 보컬멜로디 라인으로 연주하여 마지막까지 감정의 여운을준다.

### 3. 결론

요즘 가수라면 아이돌부터 기성 가수들에 이르기까지 의무 사항처럼 앨범에 리메이크 곡이 한 곡씩은 포함되어있다.

현재의 어법으로 편곡해 부름으로써 10대 중심이었던 대중문화가 기성세대까지 확장이 되어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교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를 통해 리메이크가 갖는 의의와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리메이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참고 문헌

- [1] <https://namu.wiki/w/%EB%A6%AC%EB%A9%94%EC%9D%B4%ED%81%AC>
- [2] 두산백과.김광석의다시부르기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54808&cid=40942&categoryId=33046>
- [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7083&cid=42219&categoryId=58212>
- [4] 일기예보. "日氣豫報, 3 [compact disc]."-- (1996)
- [5] <http://star.fnnews.com/archives/539814>
- [6] <https://music.bugs.co.kr/artist/20170517>



[그림7] SNB ‘인형의 꿈’ 29 ~ 36마디

이 곡은 1절에서는 여자보컬, 2절에서는 남자보컬이 나온다. 담백하고 담담하게 피아노와 보컬만 나오던 1절과는 다르게 2절에선 원곡만큼 과하게 쓰진 않지만 기타에 디스토션 이펙터를 사용하여 담담하지만 한층 감정을 살려낸다.



[그림18] SNB ‘인형의 꿈’ 37 ~ 42마디

원곡은 스타카토로 진행되지만 밴드 SNB버전은 피아노 코드를 풀어 아르페지오로 연주된다. ‘작은 인형처럼 그대만을 향해 있는 나’ 라는 가사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 담담하게 그의 뒤에 있는 감정을 표현한다.

